

---

# 유아 이해하기 - '유아 문화' 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

## Understanding Child-A Hermeneutic Understanding of Child's Cultures

---

한선아  
목원대학교

Sun-Ah Han(sahan@mokwon.ac.kr)

---

### 요약

유아를 '이해한다'는 것은 최근 유아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유아를 발달단계상 특징으로만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존의 양적 연구방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공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해석학적 관점으로 유아문화 읽기를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의 이해 대상인 유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포함한 심층적 이해와 해석이 가능하며, 그들의 삶과 문화를 공유하는 하나의 소통 방식이 되길 기대한다.

■ 중심어 : | 유아 문화 | 해석학 | 이해 |

### Abstract

Understanding' the child has recently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at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It comes from sympathizing with the opinion that understanding the child only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al stages has a certain limit and it needs the deep understanding which can not be solved by the existing quantitative researching method only. This study suggests reading the child's culture from the point of the hermeneutical view as one method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ild wholistically. By this,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and to analyze the child deeply, our subject to understand, including the past, the current and the future of the child, and I hope that it will become one communicating way to share the life and the culture of the child.

■ keyword : | Child's Cultures | Hermeneutics | Understanding |

---

## I. 서론

지금까지 유아들을 이해하는 일은 심리학에서 규정하는 유아의 심리적 발달단계상의 특징을 아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간주해 왔다. 그래서 모든 유아 관련 전공 대학의 교과과정에는 유아(아동)심리학, 유아(아동)발달심리학 등의 과목이 매우 중요한 전공 기초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물론 유아 교사가 그러한 이론들을 아는 것은 특정 연령의 유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인지발달이론, 도덕발달이론, 자아발달이론 등을 아는 것만으로 과연 유아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유아를 총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 또한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란 매우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그것은 유아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대한 이해와 무엇보다 유아가 세상을 인식하는 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혹은 집단으로서의 유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양식으로서 그들이 지닌 문화의 의미와, 이를 읽어내고 이해하기 위한 관점으로서의 해석학의 가치를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적 연구로 유아를 해석하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 연구자와 유아 간 질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유아 이해의 한 가능성을 탐지해 보고자 한다.

## II. 유아를 이해하기

### 1. 유아 문화

유아를 이해한다는 것은 아마도 유아의 행위를 지각하고 해석하는 인식체계와 관련하여 파악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때의 행위란 낱낱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유사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늘 다른 행위와 관련하여 함께 나타나는 행위이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행위의 유형 혹은 삶의 양식이라고 부른다. 이 가운데 행위의 유형은 비교적 표면상의 특징과 함께 그 이면의 원리나 조건까지도 함께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삶의 양식이라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표면상의 특징보다는 이면의 원리나 조건이 더욱 강조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의 삶의 양식을 문화인류학자들은 문화라고 일컫는다. 인류학자마다 문화를 다르게 정의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화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문화가 생활양식이나 생활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외적으로 표현된 행동이나 행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모든 행동과 생활이 내면적으로 일정한 행동의 기준, 가치관 내지 어떠한 사상에 의해서 일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문화는 인간의 행동양식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양식을 지배하는 내적으로 통합된 어떠한 체계를 말한다. 어떤 행동이든 어떤 사회구조든 그것이 하나의 내적으로 통합된 문화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화는 모순 없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합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1].

위의 설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화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사고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또 그 행위는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행위가 삶의 조건을 형성하고 바꾸어 놓기도 하기 때문에 문화는 결국 삶의 조건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때의 삶의 조건은 행위자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인식체계에 의해서 해석되고 행위자의 행위에 의해서 구성되는 바대로의 조건이다. 이 정의로라면 유아 문화는 '유아들이 그들의 인식체계에 의해서 삶의 조건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토대로 행위하며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유아를 이해하는 일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유아의 삶은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들의 현재 인식체계는 과거 삶의 조건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그들의 과거 행위가 현재의 삶의 조건을 형성한다. 따라서 현재의 유아 문화를 이해하는 일은 그들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이해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학생문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고등학생들의 현재 표면상 드러난 행위만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구조성과 역사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그 오류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한편으로는 그 집단의 특유의 삶의 조건과 그 조건을 해석하는 문화주체의 의미세계를 파악할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행위를 연속적인 시간선상에서 파악할 것을 강조하는 것은 위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 가능할 것이다[2].

이렇게 볼 때 유아를 이해한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예측 가능한 미래까지의 유아의 삶의 양식, 즉 유아문화를 이해한다는 의미가 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유아문화를 읽는 것이 유아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유아는 사실상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치원생으로서의 유아, 학원에서의 유아, 그리고 가정 내 부모-자

너 관계 속에서의 유아, 또래관계 속에서의 유아는 각각 다른 문화를 지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또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의 문화를 읽음으로써 유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 유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유아가 존재하는 시간, 장소 등에 따라 한 개인의 유아가 실은 매우 다른 모습으로 존재함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유아 문화가 지닌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여 유아 연구자들의 지평이 확대되고 융합될 수 있도록 이해가 확대되는 경우, 그들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보다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다음 절에서 해석학적 관점에서 유아의 문화를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해석학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유아 문화를 읽어냄에 해석학적 관점이 어떠한 가치를 지닐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해석학적 관점

### 2.1 해석학적 관점의 기본 가정

해석학에서 보는 인간은 적어도 내적으로 복잡한 정신구조를 갖고 있으며, 또 외적으로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으며 그 속에서 형성되어 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재방식인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가 외적으로 표출한 행동인 객관적인 사실만을 관찰할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요소들을 고려한 그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본다면 인간이 주체가 되는 사회 현상이나 역사 현상, 문화 등을 다룰 때에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사실만 독립시켜 고찰한다는 것은 문제가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해석학이 실증주의 자연과학의 방법과는 달리 '이해의 방법'을 제시한 이유가 드러난다. 즉 해석학이 사회과학 연구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정지된 인간이 아니라 사회현상의 주체가 되는 '행위 하는 인간'을 상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인간은 그가 행위하고 있는 삶의 전체성 속에서 파악한다고 보고 있다. 인간의 삶은 인간의 전체적이고 내적인 구조인 심리적, 정서적, 지적인 본성에서 파생된 현상이며, 이

런 현상은 가치와 의미의 목적이 의미 연관을 이루는 전체성의 세계이다. 즉, 인간적 현상은 인간 자체와 하나의 통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간 행위에서 파생되는 일체의 것은 인간에게 환원해서 이해해야 한다. 인간의 표현은 모두 내적인 과정의 표현이므로 내적인 의미의 파악, 이것이 해석학적 인간 이해 방법의 요체인 것이다[3].

### 2.2 해석학에서 보는 '이해'의 개념

전통적으로 인문사회과학에서는 '이해(understanding)'과 '설명(explanation)'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예로 딜타이는 "자연현상에 대해서는 '설명'의 방법을, 인간현상에 대해서는 '이해'의 방법이 적절하다."고 구분하였다. 즉, '설명'이란 개념은 자연과학 방법론에서 지성(知性)의 모형을 뜻하는 것으로, 주로 객관적인 외부적 관찰과 가설 설정 및 검증이라는 연역적 추론, 자료의 수량화, 결과의 일반화 등의 실증적 방법을 가리킨다. 이러한 방법은 인간의 현상을 고정된 규칙성으로 환원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규칙성의 논리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검증된 지식은 객관적인 과학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순진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반면,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 현상에서는 고정된 규칙성으로 표현될 수 없는 개개인의 특이하고 다양한 의미의 차원과 객관적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복잡성이 내재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유아가 동일한 활동을 하더라도 각 유아가 갖는 경험의 질과 의미는 각기 다르며, 그것은 획일적이고 고정된 단순 명제로 측정하기에는 너무나 복잡 미묘하고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이해'란 유아가 지닌 주위 인간 및 사물과의 상호관계와 개인적인 삶의 역사성 속에서 그가 느끼는 특수하고도 절대적인 체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4].

해석학적 경험은 단적으로 말해서 '이해'이다. 이해라는 것은 이미 어떤 전통(혹은 문화) 속에 있는 구체적인 인간의 행위로서, 인위적으로 조작된 편견 없는 진공 상태에서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사의 흐름과 영향 아래에서 그것을 대하며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해의 주체인 나와 대상과의 관계는 주·객의 대립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이미 대상의 영향사 아래에 서 있으며, 대상이라는 것도 나의 현재의 역사적 지평을 떠나서 그 자체로 있는 존재가 아니다.

가다머가 비판하고 있는 실증주의적 방법의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서구문명을 밑받침하고 있는 '진리'와 그 진리를 '방법'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5] 과학주의 인식론에 맹종하고 있는 전통적 인식론은 주체와 객체가 엄밀히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그 무엇에 의해서도 좌우되지 않는 부동의 지주로서 주체와, 그 주체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체를 연결시키는 수단을 방법이라고 하며, 이 방법이 확립되면 다른 사람들 역시 진리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다머는 이러한 주객이원론과 객관화의 문제를 예술 작품의 경험 혹은 이해로부터 해명하고 있다. 예술문화 작품과 독자의 관계는 분리된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또한 양자 사이에는 방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결국 예술 문화 작품과 그것을 이해시키려는 독자의 관계는 개성적이며 그 작품이 때로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낡은 관점과 입장을 동요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이해의 대상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을 가다머는 해석학적 경험이라고 본다. 물론 여기서의 경험은 근대 경험과학에서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종교적·문화적 체험을 포함한 모든 일상생활 전체 영역에서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석학적 경험이란 자신의 유한성에 대한 경험이며 자기 세계관의 불완전성에 대한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해의 해석학은 존재론적이면서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석학에서의 이해는 다른 인간 활동들과 대조될 수 있는 활동의 한 유형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오히려 이것은 이해의 보편적 과정에 대한 검토이며 인간의 자연스러운 능력이다. 우리가 참으로 이해의 고정에 있는 존재라면 이해라는 놀이의 역할은 모든 인간 행위의 근저에 놓여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이해가 주관의 한 활동으로 생각될 수 없고, 더 이상 정신과학의 방법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6].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실증적 특성을 지니는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차용하여 유아들의 생활세계, 즉 유아문화를 이해하고자 한 기존의 연구방법들이 얼마나 협소한 관점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더불어 해석학이 지니는 이해의 측면과 상호관계, 그리고 역사성 등은 유아교육자들이 추구하는 유아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에 상응하는 철학적 가치임을 알 수 있다.

### III. 결론

유아를 이해한다는 것은 유아의 문화 외부에 존재한 채 우리가 '사고'해야만 하는 대상으로서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호흡하는 이해의 지평이다. 종전과 같이 유아들의 문화에 담긴 의미를 실증과학적 이론 체계에 의지하여 해석할 경우, 유아들을 연구하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산물들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결론적 논의로만 일관하게 된다. 유아들이 그들의 문화를 통해 경험하는 세계는 자신들 나름의 수준에서 보이는 주변 세계와의 진지한 관계 맺음과 소통의 과정이다. 그 속에서 유아들은 각각의 삶의 형태들이 지니는 행간의 의미와 다층적인 정서를 학습해 나가며 자기 자신과 세계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성인들의 세계와 자신들의 세계가 어떻게 공동의 기반을 지니게 되는지, 자신이 세계에서 어떻게 자율적인 주체자로서 행위할 수 있게 되는지를 점차 깨달아 나가게 된다[7]. 위에서 살펴본 내용에 비추어 유아 문화를 해석학적 관점으로 읽어냄으로써 유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해석학에서 주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의미를 이해'한다는 성격에 관한 논의들을 참조해볼 때 해석학적 접근방법이 유아 문화가 지니는 내용과 의미들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아들의 또래 문화는 인간의 문화적·사회적 활동의 산물이며, 따라서 유아의 활동은 이해와 해석의 대상이지 결코 자연과학적 모델을 차용한 분석

의 대상이 아니므로 유아 문화도 일종의 자연적 현상으로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의미구성체라는 사실에서 해석학적 접근의 타당성을 지니게 된다.

둘째, 유아들의 문화를 해석함으로써 문화의 생산자인 유아가 지닌 세계에 대한 이해를 읽어낼 수 있다. 이는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수많은 표현양식들을 주어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해석 능력을 동원하여 스스로 의미를 읽어 나가면서 거기에 표현된 각기 다른 다양한 관점과 해석들을 감지하고 우리 자신의 지평을 열어가는 일이다.[8]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아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가 어떻게, 왜 구성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조각조각 분해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유아들의 놀이나 그 외 다양한 문화 행동들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뒷면에 있는 의미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철학적 관점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위한 하나의 방법론을 시사하였다. 이는 유아의 문화를 해석학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통해 유아들의 삶과 생활양식, 즉 유아 문화를 읽어냄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유아교육의 현장에서 본 연구가 유아들의 삶과 문화를 공유하는 하나의 소통 방식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1997.

- [5] H. G. Gadamer, "Truth and Method," J. Weinsheimer & D. G. Marshall., New York:Coninum., 1996.
- [6] 최신일, "해석학과 구성주의", 대구대학교 초등교육 연구소 논문집, 1998.
- [7] 한선아, "한국 전래동화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8] 유혜령, "전통 아동놀이 연구의 대안적 접근:의미론적 해석", 교육인류학 연구, 제4권, 제3호, pp.153-177, 2001.

#### 저 자 소 개

#### 한 선 아(Sun-Ah Han)

#### 정희원



- 1994년 :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유아교육전공(문학사)
- 1996년 :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전공(문학석사)
- 2003년 :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전공(문학박사)

• 2008년 ~ 현재 : 목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질적연구, 유아문학교육, 유아컴퓨터교육

#### 참 고 문 헌

- [1] 이광규, "문화인류학의 세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 [2] 조용환, "질적 기술, 분석, 해석", 교육인류학연구, 제2권, 제2호, pp.27-63, 1999.
- [3] 변호걸, "실증주의 교육학 이론에 대한 해석학의 비판과 함의", 건국대학교 대학원 학술논문집, pp.33-48, 1993.
- [4] 유혜령, "질적 아동 연구를 위한 해석학의 방법론적 시사", 아동학회지, 제18권, 제2호, pp.57-71.